

최근의 油價 · 石油需給 동향과 전망

1. 머리말

지난 1월말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73회 임시회의를 열고, 3일간의 난항끝에 輕質油 가격의 인하를 통한 유종간 가격차의 축소 조정조치를 결정했다. 유종간의 가격차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이의 축소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기존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공시가격을 배럴당 29달러에서 1달러 인하함으로써 사실상의 유가인하를 단행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OPEC는 1960년 창설 이후 1983년 3월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油價인하를 하게 되었다.

과거 10년 동안의 油價파동을 보면,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油價는 상승세만 보여왔으나, 지난 82년부터 약세로 돌아서 OPEC 기준원유인 아라비안 라이트의 공시가격은 83년 3월에 배럴당 34달러에서 29달러로 인하된 후, 이번 에 다시 28달러로 인하됨으로써 2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배럴당 6달러나 인하되었다. 더우기 현물시장에서의 油價는 82년 이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거래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공공연하게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석유시장을 둘러싼 경제외적 요인들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발하지 않는 한 국제시장의 油價는 계속 침체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油價인하의 배경

지난 82년 이후 油價가 계속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마디로 공급과잉 현상으로 돌릴 수 있다. 한편 국제석유 시장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크게 보아 다음 세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난 70년대의 급격한 油價상승 및 이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점, 둘째 非OPEC 산유국들의 산유량이 증대하였다는 점, 셋째 OPEC 산유국들의 결속이 약화되어 시장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또한 OPEC 輕質油의 현물가격이 공시가격을 하회하고 현상은 油價가 필연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물가격의 公示價 하회현상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가 北海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의 가격 지지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르웨이와 英國이 1984년 10월 北海원유의 공시가격을 경쟁적으로 배럴당 1.5-2.0달러 인하하여 현물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北海産 Brent 원유의 공시가격이 이와 같이 인하되자 이와 경쟁유종을 생산하는 나이지리아도 OPEC 공시가격 체제에서의 이탈을 불사하면서 Bonny Light 원유의 공시가격을 84년 10월중 배럴당 28달러로 2달러 인하하게 되어 OPEC의 유가구조는 크게 동요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정제시설이 현대화되고 정제기

〈表 - 1〉 유종별 原油의 공식가격 변화

(單位: \$/B)

산 유 국	81. 1	82. 1	83. 4	85. 1	85. 2
〈OPEC〉					
사우디 A-L 34°	32.00	34.00	29.00	29.00	28.00
A-M31°	31.45	32.40	27.40	27.65	27.40
A-H27°	31.00	31.00	26.00	26.50	26.50
아 부 다 비 Murban 39°	36.56	35.50	29.56	29.31	28.15
이 란 I-L 34°	37.00	34.20	28.00	29.11	28.05
쿠 웨 이 트 Kuwait 31°	35.50	32.30	27.30	27.55	27.30
카 타 르 Marine 36°	37.23	35.30	29.30	29.05	28.05
알 제 리 Saharan 44°	40.00	37.00	30.50	30.50	30.50
리 비 아 Es Sider 37.5°	40.78	36.50	30.15	30.15	30.15
나 이지 리 아 Bonny 37°	40.00	36.50	30.00	28.00	28.65
인 도 네 시 아 Minas 35°	40.00	36.50	29.53	29.53	28.53
베 네 수 엘 라 Oficina 34°	35.00	35.00	31.09	31.09	28.80
〈非OPEC〉					
미 국 WTI 40°	38.00	25.00	30.00	28.00	28.40
멕시코 Isthmus 34°	38.50	35.00	29.00	29.00	27.75
英 國 Brent 37°	29.25	36.60	30.00	28.65	28.65
노 르 웨 이 Ekofisk 42°	40.00	37.25	30.25	-	-

술이 발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重質油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輕質油가 약세를 보였던 기간중에서 重質油의 현물가격은 공식가격을 상회하였던 바, 이는 중질유에 대한 수요증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1) 石油수요의 감소

세계 석유수요는 70년대에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서서히 감소, 83년까지 침체현상을 보여 왔다. OECD 통계에 의하면, 760만B/D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Morgan은행의 추정치는 이 기간중의 감소량이 약 730만B/D로 나타나고 있

다.

한편 石油소비량은 선진국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던 84년에 들어서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추정한 84년의 세계 석유소비량은 4 천 560만B/D로 전년보다 약 100만B/D가 늘어나는데 그쳐 세계 석유시장을 자극시키는 데에는 매우 부족했다. 국별로는 선진국중 경제성장율이 높았던 美国과 日本의 소비증가율은 선진국 전체의 평균보다 높았고, 반면에 유럽제국은 경기회복 속도가 느렸을 뿐만 아니라, 달러貨의 강세로 인하여 석유수입 부담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석유수요증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율이 높았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증가율은 높게 나타난 반면 中南美 국가들의 증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非OPEC 산유국의 공급증대

전세계 산유량에서 OPEC의 비중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낮아져 왔다. 지난 7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의 50%를 초과하던 OPEC의 산유량 비중은 지난 78년부터 58%를 밑돌기 시작하여 지난 83년에는 30% 수준까지 감소했다.

지난 84년중 자유세계의 석유소비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분도 모두 非OPEC 국가의 산유

〈表 - 2〉 自由世界の 석유수급 현황

(單位: 백만B/D)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OECD 소비	41.6	38.8	36.5	34.6	33.8	34.9	35.3
OPEC 소비	2.6	2.8	2.9	2.9	3.0	3.2	3.2
非OPEC 개도국 소비	7.8	7.9	7.9	7.7	7.6	7.5	7.8
OECD 제 고 증 감	0.7	0.4	-0.3	-0.6	44.0	45.4	46.5
총 공 급	53.8	50.1	46.9	44.8	44.3	45.7	46.8
OECD 생산	14.7	14.8	15.0	15.5	15.9	16.4	16.6
非OPEC 개도국 생산	5.3	5.7	6.3	7.0	7.3	7.8	8.0
공산권순수출	1.1	1.0	1.1	1.5	1.6	1.7	1.7
OPEC 생산	31.6	27.6	23.5	19.8	18.5	18.8	19.5
기 타	1.1	1.0	1.0	1.0	1.0	1.0	1.0

〈資料〉 OECD Economist Outlook, Dec. 1984

량 증가분으로 충당되어 OPEC의 산유량 증가는 빈약하였다. 반면에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과 공산권의 순수출량은 84년중에서도 합계 110만B/D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4년동안 440만B/D나 늘어났다. 非OPEC 산유국 중에서도 특히 개도국들의 산유량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非OPEC 개도국들은 84년중 전년보다 50만B/D가 늘어난 780만B/D의 원유를 생산했다. OECD지역에서는 北海유전의 산유량이 전년비 40만B/D 늘어난 340만B/D, 그리고 美國의 산유량은 83년보다 30만B/D가 늘어난 112만B/D를 각각 기록했다.

(3) OPEC 内部의 문제

세계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OPEC의 점유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다. 시장점유율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OPEC의 카르텔로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일부에서는 OPEC의 붕괴가능성까지도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소들이 OPEC의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막대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날카로와지고 있는 OPEC 내부의 정치적 분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회원산유국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3. 국제석유시장동향과 전망

OPEC의 현유가 구조가 과연 안정될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PEC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급진적인 노선을 견뎠던 알제리와 리비아는 당분간 高油價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지만, 알제리가 끝내 시장환경에 굴복 배럴당 30.50달러에서 1달러를 인하조치하여 3월말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리비아도 고객들로 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조만간 인하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자국산 輕質油 가격은 29.11달러에서 28.05달러로 인하하고, API 31° 原油가격을 사우디아라비아 中質油가격보다 5센트 밀도는 27.35달러로 고정시켰으며, OPEC 집행위원회에 의해 쉽

사리 발각되지 않을 가격용인 즉 할인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격할인제도는 OPEC의 새로운 가격구조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OPEC 가격구조에 위협적인 행동은 OPEC 외부에서 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고 OPEC는 총회에 멕시코, 이집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을 업저버로 초청했으며, 英國, 노르웨이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英國의 BNOC가 해체됨에 따라 국제석유시장에 약세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으며, 현물시장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輕質油 산유국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한편 소요 원유량중 상당량을 해외원유에 의존하고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美國이 석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에서 가격할인을 유도해 낼 가능성도 있다. 가동을 저하와 초과정제 능력의 증가로 美國의 정제업자들은 보다 더 저렴한 원유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美國 내 원유생산업자와 유통업자는 原油의 공시판매가격을 인하, 지난 해 10월 배럴당 평균 30.35달러에서 현재의 27.75달러로 인하하는 사태를 유발시켰다.

美國에서의 이와 같은 原油價의 침체현상은 OPEC의 가격정책에 동조해 오던 멕시코에 인하압박을 가해 경질유 Isthmus의 가격을 29달러에서 27.75달러로 인하시켰다. API 40°인 WTI 원유는 英國의 Brent 원유와 같은 유종이므로 WTI의 인하는 BNOC에 유가인하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여부는 석유시장에 나오는 물량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볼 때, 85년은 84년에 비해 약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IEA의 최근 自由世界 수요예측에 의하면, 지난 해 하루 4천620만 배럴에서 4천 670만배럴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의 석유공급량은 非OPEC산 원유가 2천 750만B/D, OPEC산 원유 및 NGL이 1천 870만 B/D이었으며, 비축재고 방출이 하루 20만 배럴이었다. 그러나 85년의 공급상황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北海의 원유 공급량이 과연 계속 증가일변도를 달릴 것인지, 또 소련이 가격침체에도

〈表-3〉 OPEC 산유량 쿼터의 변화

(單位：천B/D)

	1982. 3	1983. 3	1984. 10
사우디아라비아*	7,150	5,000	4,353
이 란	1,200	2,400	2,300
이 라 크	1,200	1,200	1,200
쿠 웨 이 트*	800	1,050	900
U A E	1,000	1,100	950
카 타 르	300	300	280
베 네 수 엘 라	1,500	1,675	1,555
나 이 지 리 아	1,300	1,300	1,300**
리 비 아	750	1,100	990
인 도 네 시 아	1,300	1,300	1,189
알 제 리	650	725	663
가 봉	150	125	137
에 콰 도 르	200	200	187
합 계	17,500	17,500	16,000

註：*중립지대 포함.

**84. 11월 생산분을 잠정적으로 1,450B/D로 허용.

〈資料〉 P. Economist

불구하고 석유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IEA는 순 비축재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금년의 석유생산량을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2천830만B/D, OPEC産 원유 1천840만 배럴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 중에는 NGL이 지난 해와 비슷한 130만B/D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OPEC의 산유량은 현재의 쿼터를 상회하는 1천 740만B/D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가격의 향방은 OPEC 산유국들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까지 여하히 산유량 통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 계절적 성수기가 끝난 앞으로 2-3개월이 OPEC의 油價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油價는 현재와 같이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DRI, WEFA 또는 OECD 등 주요경제예측 기관들은 최소한 1986년까지는 油價가 1984년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雙龍精油·주간石油에너지정보)

□ 代替에너지개발 □

선진국 代替에너지개발 박차

주요선진국들이 에너지공급원 다양화의 일환으로 대체에너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産業研究院(KIET)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주요선진국들이 에너지정책 기조를 공급의 안정적 확보에서 생산비 절감으로 전환, 석유와 경쟁이 되는 석탄·천연가스 및 原子力등 대체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인 日本의 경우 90년대까지는 전체에너지 가운데 석유의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고 동시에 日本式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등 원자력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수년내로 北海油田으로부터의 석유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英國은 원자력이 용의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프랑스도 90년

에는 총발전량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아래 지난 76년부터 세계최초의 상업용高速增殖爐(FB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각국은 지난 해에 고속 증식로의 공동개발을 위한 5개국 협약을 체결하고 EC10개국과 스웨덴·스위스의 공동참여로 세계 최대의 核融合爐를 건설하는 등 원자력개발에 있어서의 공동보조를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의 완전자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고 있는 濠洲·캐나다 등 資源富國 역시 대체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石油의존도를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濠洲는 현재 투자총액 1백10억달러에 달하는 北西대륙봉 천연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